

광주 'AI 중심도시' 본격화

인공지능융합사업단, 전문인력 11명 블라인드 채용 오늘부터 공고...2024년까지 연차별로 총 72명 공채

광주시가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인재 채용에 나선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인재를 채용한다. 채용은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의 공고로 시작으로 4월까지 최종 임용한다.

이번 인재 채용은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1차 연도 사업 추진으로 일반직 9명, 전문직 1명, 계약직 1명 등 총 11명을 우선 채용한다. 오는 24년까지 연차별로 총 7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채용공고 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시행, 예비 3순위까지 예비합격자를 결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해 내달 최종 임용을 확정한다.

특히 올해는 1차 연도 사업으로 ▲인프라(창업동·실증동·데이터센터) 구축 ▲실증장비 도입 ▲창업 108개사 지원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인력 채용을 중점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기시험을 제외하고 추진하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면접시험을 강화해 직무 중심의 블라인드 면접을 원칙으로 채용의 객관성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인공지능 산업융합 사업단의 전문인력 채용으로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

단지 조성사업'이 본래도에 진입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형 인공지능 기반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사업단 인재 채용을 시작으로 올해 100여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29일 이 사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AI산업융합사업단'을 발족시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손경종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단과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코로나19 추경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오른쪽부터), 구윤철 기재2차관,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왼쪽부터), 민생당 김광수 간사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장에서 코로나19 추경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 브리핑



천정배, 감염병 재난극복 '3대 비상대책' 제시

민생당 천정배(광주 서울) 의원이 '총선 1호 공약'으로 감염병 재난극복을 위한 ▲지역화폐로 코로나19 재난소득 100만원 지급 ▲마스크 무상지급·공공비축 ▲국가 재난 시 '가짜뉴스·혐오발언 처벌법' 제정 등 3대 비상대책을 15일 제시했다.

천 의원은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 보호와 경제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의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원대상자 선별난·행정비용 및 구제의 긴급성을 감안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또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 위기시 개인 방역물품 무상공급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마스크·손 소독제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 자원으로 비축하고,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해 사재기를 차단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장병완 "일하는 국회·신뢰받는 국회 만들겠다"

민생당 장병완(광주 동남) 의원이 15일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정치개혁·국회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이를 위해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및 윤리특위 운영 실효성 확보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 확립 ▲소수정당 국회 운영 참여 보장 및 원내 교섭단체 구성 기준 완화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장 의원은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그 첫걸음이 국회 운영에 대한 혁신이다"면서 "국회의원의 책임감·품위 유지하는 국회, 민의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국회, 개별 상임위에서 법안과 예산안을 열심히 심사하는 국회가 되도록 국회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삼석 "여객선터미널 열감지기 교체·추가설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5일 전남지역 7개 시·군 여객선터미널 15개소에 총 25대의 열감지기가 교체 및 추가 설치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여객선터미널에서 현재 사용 중인 열감지기는 총 16대이지만 컨테이너 등 소규모 매표소 3곳은 설치돼 있지 않아 건강 취약계층은 감염위험으로부터 노출돼 있으며, 사용 중인 열감지기도 다중이용자를 체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교체 및 추

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지난달 27일 여객선터미널의 감염예방 대응을 위해 정부 추경 편성에 시급한 사업으로 열감지기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열감지기는 발열을 체크하는 감지 시스템으로 밀폐공간인 여객선 내에서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장치다. 이번 열감지기 설치로 섬주민들의 코로나 19 대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 4·15 총선
예비후보에 듣는다

20 황주홍 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예비후보

해서는 예산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이를 위해 농어업 예산비중을 10%로 상향시키겠다"고 제시했다. 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을 위한 5대 민감품목 생산할당제 도입, 쌀문제 해소를 위한 쌀제정법 마련, 임업직불제 도입 및 공익형직불금 인상, 농민수당 및 농업인 기본소득제 도입 등 농정 5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 지역구인 고흥·보성·장흥·강진의 관심사항 중 하나가 교통 접근성이다. 고속철도 조속 개통, 국도 연장 및 관리, 지방도 불불해소 등 군민



"일하는 국회... 호남 가치·이익 극대화 선봉장 역할"

법안 발의·국회통과 '1위' ...농산물 최저가 보장 등 5대 정책 공약

이 있다. 첫째 온 힘을 다해 '싸우지 않는 국회'를 실현시키고, 둘째 농업소득을 2배로 끌어 올려놓고 싶다"면서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저학력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치도 중요하다. 호남을 발전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다선·중진 우선문화가 형성돼 있다. 3선 이상이 돼야 원내대표·예결위위원장·상임위원장 같은 힘있는 자리를 맡을 수 있다. 그것이 '3선 국회의원의 힘'이다"며 "3선 중진반열에 오르면 저 황주홍의 영향력이 절정에서 만개할 걸로 본다. 힘이 있어야 농업예산을 현재 3%에서 앞으로 5%로, 10%로 늘릴 수 있고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황 예비후보는 대표공약으로 "상대적 가난에 힘겨워하는 300만 농어민을 위

들의 이동권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주요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황 예비후보는 20대 국회 의정활동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법안 대표발의 건수와 국회 본회의 통과 건수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1위를 기록했다.

황 예비후보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26건이 통과됐다"며 "이번에 통과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치유농업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제정안으로 치유농업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성장과 국민 삶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업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으로 임업인 위상과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명분과 실력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호남의 가치와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봉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더 힘있는 3선 중진이 되면 지역발전, 농어촌의 획기적 소득증대, 싸우지 않는 국회를 실현하는데 군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예비후보는 "군민들께서, 농어민들께서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이 되는데 저 황주홍이 밀알이 되고 싶다"면서 "사랑하는 고흥·보성·장흥·강진 군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 기자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 신고전화 1644-8295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을 때릴 때



장애인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몸을 만질 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에게 욕을 하거나 무서운 말을 하며 괴롭힐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고 버렸을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식사를 안 주거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돈을 빼앗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을 때

장애인학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조사를 합니다.

3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의료·심리·거주·사법 복지

4

잘 지내는지 확인합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일을 겪었을 때 장애인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로 전화합니다.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하나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합니다.


